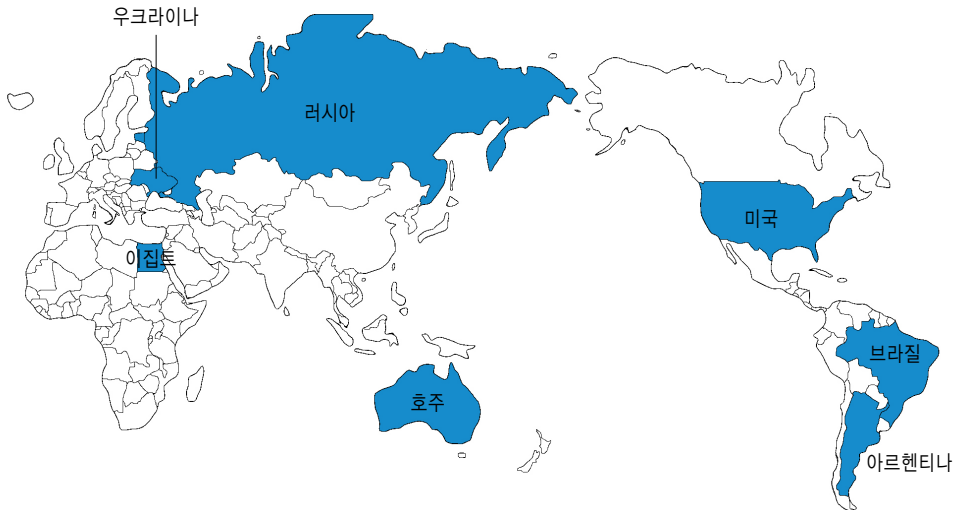


해외곡물시장 뉴스



해외곡물시장 뉴스



북아메리카 미국 미국 및 브라질의 바이오작물 파종, 각각 4% 확대	아프리카 이집트 이집트, 프랑스 및 루마니아산 밀 300,000톤 구매 이집트, 12월 프랑스산 밀 수출시장에서 최대 수입국
남아메리카 브라질 브라질의 덩고 건조한 1월기후로 대두생산 차질 브라질의 대두생산, 93.2백만 톤으로 하향조정 브라질, 1월 건조한 기후이후 대두생산 감축전망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 강우로 대두수확 증가 아르헨티나, 낮은가격 제시시 밀수출허용 제한 아르헨티나의 2014/15년 대두생산, 57백만 톤으로 사상최대 전망 아르헨티나, 2014/15년 대두수확 사상최대 물량으로 58백만 톤 전망	유럽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1~6월 기간동안 밀수출 1.2백만 톤으로 감축 우크라이나, 곡물수출 한계 초과시 대응할 계획 러시아 러시아 및 우크라이나 겨울작물, 건조한 가을기후로 작황차질 러시아, 2015/16년 곡물수출 20~30백만 톤 계획 러시아, 이집트에 대한 밀 수출관세 예외불가
오세아니아 호주 호주 기상청, 낮은 엘니뇨 발생가능성 전망	

1. 미국

■ 미국 및 브라질의 바이오작물 파종, 각각 4% 확대

지난해 미국과 브라질의 농가들은 바이오작물 파종을 전 세계의 파종비율보다 더 빠르게 확대해나갔다. ‘농업생명공학 응용을 위한 국제서비스(ISAAA)’에 따르면, 미국 농가들은 73.1백만 헥타르(180.6백만 에이커)에 바이오작물 파종을 마쳐 2013년 대비 4.3% 증가한 수준이었으며 브라질은 4.7% 증가한 42.2백만 헥타르(104.3백만 에이커)였다고 한다. 한편 전 세계적으로 바이오작물 파종은 3.6% 증가한 181.5백만 헥타르(448.5백만 에이커)였다. 미국 및 브라질 두 국가의 최대 바이오작물은 옥수수, 대두, 면화이다.

비평가들은 ISAAA의 바이오작물 산업성장 지지노력의 일환인 파종면적 확대추진에 대해 이전부터 비난을 제기했었다. 일부 바이오작물의 반대론자들도 바이오작물이 살충제의 사용 및 환경피해를 증가시키며 소비자들의 식품소비 전반에도 우려를 불러일으킨다고 전했다.(2015.1.29.)

2. 브라질

■ 브라질의 덥고 건조한 1월기후로 대두생산 차질

브라질연구소 AgRural에 따르면 브라질의 1월 내내 덥고 건조한 기후로 2014/15년 대두생산에 차질이 있다고 한다. 이에 따라 AgRural은 2월 대두생산 전망을 95백만 톤에서 하향조정할 계획이다. AgRural은 “금주 대두 재배지역에 강우소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강우량이 북동부, 중서부, 남동부지역의 토양을 정상화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전하며, “손실분은 이미 확인되었다”라고 덧붙였다. 최대 대두 생산지역인 마토 그로소의 일부 지역은 1월 평균 강우량의 절반도 채 내리지 않았다.

대두수확은 전반적으로 3% 완료되었으며, AgRural에 따르면 지난해 및 5년 평균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한다. 고이아스 중서부지역의 덥고 건조한 기후는 그 지역 작물의 15%에 손실을 줄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462백만 달러에 해당한다고 한다.

한편, 브라질 식량공사 코나브(Conab)에 따르면 고이아스는 이번시즌 9.9백만 톤의 대두를 생산할 것이며 전년대비 10% 상승한 수준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코나브의 전망은 1월의 건조한 기후를 반영하지 않은 전망치이다.(2015.1.26.)

■ 브라질의 대두생산, 93.2백만 톤으로 하향조정

브라질은 주요 대두 재배지역의 건조한 기후로 2014/15년 대두생산량을 이전 전망치인 96.1백만 톤에서 93.2백만 톤으로 하향조정하였다. 이와 같이 최근 몇 달간 대두파종을 지연시키거나 어린작물에 차질을 준 건조한 기후는 주로 고이아스, 마토 그로소, 파라나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해충 역시 대두생산에 차질을 주고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오그란데 도 술은 이번시즌 높은 대두생산량을 보여주고 있어 다른 지역의 잠재적인 생산 감소를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리오그란데 도 술은 파종 및 생장단계 중 풍부한 강우소식이 있었으며 이 지역의 수확은 2월말 혹은 3월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2014.2.3.)

■ 브라질, 1월 건조한 기후이후 대두생산 감축전망

브라질 AgRural과 FCStone 현지 분석가들은 1월 건조한 기후 이후 브라질 대두생산을 감축 전망했다. 그러나 여전히 생산량은 사상최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긴 하다. AgRural은 대두생산을 이전추정치에서 3.1백만 톤 감소시킨 91.9백만 톤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평균수확도 헥타르 당 48.6포대로 이전추정치인 50.3백만 톤보다 하향조정했다. 수확도 전년대비 뒤처지고 있어 전국적으로 현재 9% 완료된 데 반해 전년 동기에는 12% 완료됐다고 한다. FCStone은 2014/15년 대두생산을 전월 추정치인 93.5백만 톤에서 92.8백만 톤으로 감축 전망했다. 한편 건조한 기후는 대체로 고이아스의 중서부지역에 영향을 미쳤으나 남부지역은 풍부한 강우로 대두작황 피해가 다소 완화되어 리오그란데 도 술의 대두생산 전망은 400,000톤 상향됐다고 한다. 그러나 2월로 접어들면서 중서부지역의 강우소식으로 더 이상의 작물피해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브라질 농축산물공급공사(Conab)은 금주 목요일 대두생산에 대한 공식전망을 수정발표 할 것이며 분석기관들의 추정치 하향조정에도 불구하고 대두 파종면적 확대로 전년 수확치인 86.12백만 톤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2015.2.9.)

3. 아르헨티나

■ 아르헨티나, 강우로 대두수확 증가

부에노스아이레스 주간보고서에 따르면 아르헨티나는 지난주 강우로 인해 2014/15년 대두수확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한다. 부에노스아이레스 곡물거래소는 “아르헨티나 동부지역의 강우로 토양에 습기가 많이 회복되었다”라고 전했다. 기준가격인 미국산 대두의 목요일 선물가격은 아르헨티나 및 라틴아메리카의 높은 대두수확 전망 및 대두유가격 약세에 따른 파급효과로 하락했다. 부에노스아이레스 곡물거래소에 따르면 아르헨티나는 2014/15년 약 20.4백만 헥타르의 대두 파종을 할 것으로 전망되며 로사리오 곡물거래소의 전망에 따르면 54.5백만 톤의 대두가 생산될 것이라고 한다.(2015.1.30.)

■ 아르헨티나, 낮은 가격 제시시 밀수출허용 제한

아르헨티나 정부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밀 재배농가들은 밀 수출업자들이 국제가격보다 매우 낮은 가격을 제시할 경우 그들은 수출허용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 경제부 장관은 “우리는 수출업자들이 재배업자들에게 제시하는 가격이 국제가격과 비슷할 경우에만 수출을 허용할 것이다.” 라고 밝히며 “현재 수출업자들은 톤당 900-1,000페소를 지불하고 있으나 해외 판매가격은 1,250-1,500페소이다”라고 전했다. 아르헨티나의 2014/15년 밀 수확은 거의 완료된 상태이며 로사리오 곡물거래소에서의 현재 거래가는 톤당 1,000페소(115.70달러)로 9월달 거래가 1,450페소보다 매우 낮은 가격이다.(2015.1.31.)

■ 아르헨티나의 2014/15년 대두생산, 57백만 톤으로 사상최대 전망

부에노스아이레스 곡물거래소에 따르면, 아르헨티나는 2014-15시즌 57백만 톤을 생산할 것으로 전망되어 사상최대 물량일 것이라고 한다. 팜파스 곡창지대 농민들은 다음달 대두수확을 시작할 것이다. 현재까지 최대 대두수확량은 2009-10년의 55백만 톤이었다. 또한 부에노스아이레스 곡물거래소의 이번시즌 파종면적도 20.4백만 헥타르 사상최대치로 변화가 없다. 아르헨티나는 세계최대 대두박 가

축사료 공급국이며 미국 및 브라질 다음으로 최대 대두수출국이다.

곡물거래소 주간리포트에 따르면 “중부 재배지역 대부분은 토양수분의 정도가 다양하다. 콜로라도 일부 지역은 건조한 반면 중북부 및 중동부 엔트레리오스는 수분이 과도하다”고 하며, “그러나 이 지역의 초기수확 추정치는 사상최대치에 가깝다.”고 전했다. 이와 같이 남미에서의 대두생산 호황의 이유는 옥수수 및 밀에 대한 엄격한 수출규제 때문이다. 농민들은 밀과 옥수수 수출할당 물량으로 인해 이 곡물들을 얼마나 재배해야 될지 계획을 세우기 어렵다고 한다.(2015.2.6.)

■ 아르헨티나, 2014/15년 대두수확 사상최대 물량으로 58백만 톤 전망

로사리오 곡물거래소에 따르면 아르헨티나는 최근 강우로 인해 2014/15 시즌 사상최대 물량인 58백만 톤을 생산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한다. 이는 이전 전망치인 54.5백만 톤에서 상향조정된 수준이다. 곡물거래소의 월간작물보고서에서 “1월 팜파스 재배지역은 폭풍으로 높은 생산 시나리오가 더욱 강화되고 있다”고 전하며, 2월 첫 열흘 간 지속된 강우기후는 대두수확도 증가시켜 헥타르 당 2.9톤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부에노스아이레스 곡물거래소도 이번달 초 2014/15년 대두수확을 57백만 톤으로 전망했다.

한편 로사리오 곡물거래소에 따르면 코르도바, 산타페, 엔트레리오스의 옥수수 수확도 증가추세로 이번시즌 수확량은 23.5백만 톤으로 이전 전망치인 22.4백만 톤을 상회하는 수준이라고 한다.(2015.2.12.)

4. 호주

■ 호주 기상청, 낮은 엘니뇨 발생가능성 전망

호주 기상청 모델에 따르면 최근 몇 주간 기후변화 완화로 엘니뇨 발생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엘니뇨는 태평양 해수면 온난화 현상으로 동남아시아 및 호주에는 가뭄을, 남미에는 호우를 야기할 가능성이 크며 쌀, 밀, 원당과 같은 식량생산에도 차질을 줄 우려가 크다. 호주기상청은 이전에는 2월 엘니뇨 발생가능성에 대해 70%로 예측했으나 최근 들어 기후지표가 완화되면서 가능성을 낮추었

다. 호주 기상청은 “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11월말 평균온도를 상회하는 1.1도에서 약 0.5도 정도 낮아졌다.”고 전했다. 2014년 태평양 해수면 최고온도가 호주, 아시아, 남미, 남아프리카의 덥고 건조한 기후의 주요 결정요인이었다.(2015.1.20.)

5. 이집트

■ 이집트, 프랑스 및 루마니아산 밀 300,000톤 구매

이집트 GASC는 경매에서 3월 1-10일 선적분 루마니아 및 프랑스산 밀 300,000톤을 구매했다. 구체적으로 루마니아산 밀 120,000톤은 아메로파로부터 수입했으며 60,000톤은 니데라로부터 수입했다. 또한 프랑스산 밀 60,000톤은 수플레트에서 나머지 60,000톤은 Lecureur에서 수입했다. 밀 평균가격은 C&F기준 톤당 236.25달러이다. 한 상인은 “이는 이번시즌 최저판매가격으로 수입국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전했다. 구체적인 가격은 다음과 같다. 수플레트로부터의 프랑스산 밀 60,000톤은 FOB 기준 220.94달러, 화물비용은 10.24달러이며 Lecureur로부터의 프랑스산 밀 60,000톤은 FOB기준 222.20달러, 화물비용은 14.29달러, 니데라로부터의 루마니아산 밀 60,000톤은 FOB기준 230.50달러, 화물비용은 7.74달러, 아메로파로부터의 루마니아산 밀 120,000톤은 FOB기준 230.25달러, 화물비용은 7.44달러이다.(2015.2.4.)

■ 이집트, 12월 프랑스산 밀 수출시장에서 최대 수입국

이집트는 12월 프랑스산 연질밀 수출시장에서 최대 수입국으로 2개월 연속 최대 수입국이다. 프랑스는 유로화 가치하락으로 이번시즌 이집트의 최대 밀 공급국가로 부상했다. 또한 경쟁공급국인 러시아의 밀 수출 감소 및 미국산 밀의 낮은 가격경쟁력 역시 프랑스산 밀의 호조에 박차를 가했다. 프랑스는 유럽연합의 최대 밀 생산국이자 수출국으로 12월 한달 동안 이집트로 연질밀 230,000톤을 수출했다. 또한 7월 이후부터 시작된 유통년도 2014/15년 시즌동안 이집트로의 수출물량도 약 776,000톤으로 2013/14년 동기간 대비 4배 이상이라고 한다. 한편 12월 한달 동안 프랑스산 연질밀 전체 수출물량은 1.4백만 톤이며 2014/15년 상반기동안 수출물량은 8.5백만 톤으로 전년대비 2% 하락했다고 한다.(2015.2.7.)

6. 우크라이나

■ 우크라이나, 1~6월 기간 동안 밀수출 1.2백만 톤으로 감축

우크라이나 정부는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제분용밀 1.2백만 톤 이상을 수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농업부장관 파블렌코(Pavlenko) 및 상인연합이 서명한 각서에 따르면 2015년 1분기의 제분용밀은 900,000톤을 초과하지 않을 것이며 남은 기간동안은 300,000톤을 수출할 것이라고 한다. 파블렌코는 “이제 주요임무는 예측가능하고 투명한 곡물시장을 보장하는 것이다.” 라고 전했다. 1~6월 기간 동안 우크라이나의 사료용밀 수출은 3.4백만 톤을 초과하지 않을 것이지만 동기간 옥수수 수출은 13.2백만 톤 이하일 것이라고 한다. 우크라이나는 2014년 24.1백만 톤의 사상최대 밀을 수확하였으며 국내소비량은 12백만 톤을 초과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이번 달 우크라이나 농업부 장관은 러시아의 곡물수출 판매 감소 결정에 따른 우크라이나산 밀에 대한 수요급등 우려로 1~2월 기간 동안 제분용 밀 수출을 400,000톤으로 제한하도록 하였다. 2014년 7월부터 2015년 6월까지인 이번 시즌 우크라이나산 밀수출은 12.8백만 톤을 초과하지 않을 것이다. 한편 2013/14년 밀수출은 13.6백만 톤이었다. 구 소련공화국은 이번시즌까지 약 8.5백만 톤의 밀을 수출했으며 수확량은 28.5백만 톤이라고 한다.(2015.1.27.)

■ 우크라이나, 곡물수출 한계 초과시 대응할 계획

우크라이나 농업부는 흐리브나 화폐가치 급락에 따른 수출급등 발생시 국내 곡물시장 보호를 위해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한다. 우크라이나 상급공무원은 “수출물량이 정해진 물량 초과시, 우리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라고 언급하며 제분용밀 수출은 가장 민감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우크라이나 정부와 상인들은 2015년 상반기동안 제분용밀 1.2백만 톤 이상을 수출하지 않기로 합의했으며 정해진 물량 초과시에는 제한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한다. 우크라이나 농업부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이번시즌 현재까지 약 22백만 톤의 곡물을 수출했으며 이는 밀 8.7백만 톤, 옥수수 9.2백만 톤, 보리 3.8백만 톤을 포함한다고 한다.(2015.2.10.)

7. 러시아

■ 러시아 및 우크라이나 겨울작물, 건조한 가을기후로 작황차질

흑해의 겨울작물 재배지역인 러시아 및 우크라이나의 작황은 건조한 가을 날씨로 지난해보다 더 악화되었으며 새로운 수확도 2014년 사상최대 수준을 초과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러시아의 2015년 곡물수확은 부진한 겨울곡물 작황 및 러시아의 루블 화폐 가치의 40%하락으로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러시아 루블 화폐 가치하락은 수출 감소, 높은 이자율, 높은 수입비용을 야기하였다. 원유가격 하락 및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제재로 야기된 루블화폐 가치하락으로 러시아는 12월에 비공식적인 제한을 두고 수출을 감소시켰다. 수출세는 2월1일부터 시행될 것이다. Soveceon에 따르면 2015년 러시아의 곡물수확은 86백만 톤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한다. 이상적인 기후로 인한 후 소비트(post-Soviet)의 104백만 톤 작물수확 이후 2014년은 러시아가 두 번째로 높은 수확을 달성한 해였다. IKAR에 따르면 2015년 겨울밀 수확은 50백만 톤으로 전망되며 이는 지난해 59백만 톤 대비 감소한 수준일 것이라고 한다.(2015.1.23.)

■ 러시아, 2015/16년 곡물수출 20-30백만 톤 계획

러시아 농업부에 따르면 2015/16년 곡물을 20-30백만 톤 수출할 계획이라고 한다. 2015년 곡물전망은 부진한 겨울곡물 작황, 수입비용, 루블화 하락에 따른 높은 이자율로 2014년 사상최대 104백만 톤과 비교하여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는 2월1일부터 밀 수출세를 부과할 것이며 이는 6월30일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밀 수출세는 소비자가격의 15%에 7.5유로가 더 추가될 것이나 톤당 가격이 35유로를 초과하지 않을 것이다. 2015년 작물생산은 85-100백만 톤의 범위 내에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2015년 68-100백만 톤의 곡물을 수확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한다.(2015.2.4.)

■ 러시아, 이집트에 대한 밀 수출관세 예외불가

러시아 농업부는 최근에 시행된 밀 수출관세에 관해 이집트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집트는 세계 최대 밀 수입국으로서 러시아와 밀 수출관세 예외에

대해 협상을 시도하였으나, 러시아 농업부는 “관세율은 수입국 및 수출국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없다”고 밝히며 이집트의 예외사항은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또한 어떠한 예외사항도 다른 국가에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집트 정부는 예외적인 사항에 대해 4월에 서명을 하고 6월1일에 발효될 것으로 예상했었다(러시아의 밀 수출관세는 6월30일까지 지속된다).

한편 러시아는 경제위기 가운데 국내 밀가격 안정화를 위해 12월 밀수출에 대한 비공식적 감축을 시행하기도 했었다. 이러한 움직임으로 이집트로의 밀수출 일부가 지연되기도 했었다. 그리고 2월1일부터 이러한 비공식적 감축과 함께 밀 수출 관세가 시행되고 있는 중이다. 수출관세는 소비자가격의 15%에 7.4유로를 합한 값이며 이는 톤당 35유로(40달러)를 초과하지 않을 것이다. 러시아 농업부는 이러한 수출관세에 대해 이는 매우 높은 가격은 아니므로 이전의 밀수출 계약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2015.2.13.)

